

CD 롬으로 거듭나는 우리의 고전

무궁무진한 출판아이템의 보고... 저작권 분쟁 소지도 있어

우리 조상의 사상과 생활의 면모를 엿볼 수 있는 고전이 속속 출간되고 있다. 95년 재단법인 민족문화추진회(회장 이우성)의 의뢰로 서울시스템(대표 이용근)에서 《국역 조선왕조실록》 CD롬을 출간한 이후 고전 국역작업과 한국사 연구에 꾸준히 이용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재구성한 책들이 출간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 CD롬의 자료 활용

CD롬의 장점은 영구보존이나 간편성보다 검색기능에 있다. 간단한 색인어로 출전과 검색이 가능하여 방대한 역사 서술을 주요 사건이나 항목, 인물, 또는 특정 주제별로 도출할 수 있어 산만한 1차 자료를 손쉽게 재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난 몇년새 출판계에 우리 역사나 민족관련 서적이 확대된 것은 《조선왕조실록 국역본》 CD롬의 발간과 무관하지 않다. 국역판으로 매일 1백쪽씩 읽어도 4년 3개월 걸리는 방대한 분량의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조 태조부터 철종까지 25대, 4백72년의 왕조시편 아니라 문화·제도·사회·경제·과학사 등 고고한 선비정신과 질박한 서민 문화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따라서 전통을 현대감각에 맞게 되살리고 인문교양을 풍부히 할 수 있는 '출판의 보고'인 셈인데, CD롬 덕분에 훨씬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들녘), 《이야기 조선왕조사》(푸른숲), 《새로 쓰는 조선

인물 실록》(자자나무) 등과 조상들의 일상성을 다룬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청년사), 《조선시대 생활사》(청년사) 같은 책들이 《조선왕조실록》과 여러 고전을 전거로 하여 출판된 책들인데, CD롬이 출간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 책들 중에는 오래기간 실록을 연구해 온 사학자들의 노작도 있지만 비전문가의 구성력 있는 저술도 돋보인다. 이 젊은 '해설자'들은 우리 역사를 생활에 되살리고 역사대중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한다.

들녘 편집부의 박성규씨(37)는 “《한권으로 읽는...》의 저자인 박영규씨가 오래전부터 조선의 왕도정치와 우리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집필을 위해 실록 원본을 일일이 찾아 대조하고 많은 자료를 참조했다. CD롬이 작업에 도움이 된 것도 사실”이라고 밝힌다.

실록을 토대로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조선시대 역사의 여러 사실을 흥미롭게 소개한 《어 그래? 조선왕조실록》(일빛)도 CD롬 덕을 본 책. 궁중야화·풍속·여성관련 내용 등 98개 항목에 걸쳐 '실록의 낙수'를 쉽게 모을 수 있었던 것도 CD롬의 검색 작업 덕분인 셈이다.

여기서 '고전'에 대한 저작권문제가 제기된다. 현재 《조선왕조실록》 CD롬은 2차 저작물로 판매수익과 인세를 포함한 제저작권은 서울시스템과 민족추진위에 귀속된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 원본은 국책사료이고

《국역 조선왕조실록》 CD롬이 출간된 이후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재구성된 책들이 출간되고 있다. 검색이 용이하고 특정 주제별로 1차 자료를 재구성할 수 있는 장점은 실록을 토대로 한 여러 형태의 흥미로운 책들에 활용됐다.

공공자료이므로 실록 원본의 저작권은 공유 상태다. 아직 문제가 불거져 나오지는 않았지만 분쟁의 소지도 다분하다. 박성호 변호사는 “국역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측에서 문제를 삼으면 이 사안은 법원에서의 '사실 인정 문제'가 된다. CD롬이 출간된 후 나온 출판물들은 '접근가능성' '실질적 유사성' 측면에서 혐의가 짙다”고 말한다.

고전 국역과 문집 CD롬 작업도 활발

고전에 대한 관심과 국역작업 CD롬 작업은 여러가지 발전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조선왕조실록》 국역작업에 참여했던 국학자들의 연이은 고전 번역과 재구성 작업이 그것이다. 《한국문집총간》에서 자료를 가려 주옥같은 문장을 골라내어 엮은 《우리 옛글 백가지》(현암사)와 《명문명답으로 읽는 조선과거실록》(동연)같은 작품들이 그런 경우다.



한편 민족문화추진회가 추진하고 있는 CD롬 작업도 활발하다. 올해부터 10년에 걸쳐 선현들의 680여종의 개인문집을 CD롬으로 만들 계획인데, 우선 조선후기의 대표적 실학자인 정약용의 문집 《여유당전서》 전체와 최치원의 《계원필경》,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 정도전의 《삼봉집》의 CD롬 발간을 추진하고 있다.

“CD롬 작업은 궁극적으로 국역작업의 바탕을 마련하는 기본작업이다. 까다로운 국역 작업에 속도가 붙어 일반인들도 선현들의 사상을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민족문화추진위의 송기채 실장(48)은 말한다. 고전 CD롬 작업에 있어 어려운 점은 시소러스를 비롯한 검색기능 구축이 쉽지 않다는 점. 좀더 효율적인 검색기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듯하다.

— 마정미 기자

수학의 기초에 관한 고찰

L. 비트겐슈타인 지음/박정일 옮김/352면/15,000원/양장

수학과 논리학에 관련된 철학적 문제들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사유의 결과를 담고 있는 원전 번역서. 모순이나 역설,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 등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독특하고도 깊이 있는 철학적 통찰을 확인할 수 있다.

존재론의 새로운 길

N. 하르트만 지음/손동현 옮김/192면/8,500원

“비판적 실재론”의 철학을 독자적으로 구축한 하르트만의 철학 전반에 대한 기본 입장과 노선 및 철학적 주요 관심사를 명료하게 보여준다. 주관에 현상하는 실제 세계를 철학적 논구의 출발점으로 삼아 존재론을 다루고 있다.

방법론

A. 멘네 지음/김보현 옮김/224면/9,500원

정의의 방법, 구별의 방법, 나눔의 방법, 정당화의 방법과 같은 일반적인 과학의 작업 방식을 소개하고 있는 과학도들의 필독서. 유비, 가정, 기호 사건과 기호 형태의 구별 등과 같은 과학적 언어에서 중요한 문제들도 함께 다루고 있다.

현대 지식론

K. 레러 지음/한상기 옮김/384면/16,000원/양장

지난 30년간 지식론 분야에서 이루어진 탐구 성과들을 기초론, 정합론, 의부론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다. 다양한 이론들의 동기, 배경, 기본 주장, 장단점 등을 고루 기술하고 있어 현대 지식론의 흐름을 파악하기에 적격이다.

철학서적 전문출판 **서광사**

130-07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 2동 119-46 영업부 924-6161 편집부 924-6165 팩시밀리 922-4993